

자살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분석과 목회윤리적 성찰

신원하(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 I. 한국사회의 높은 자살률과 교회의 신학 부재: 문제의식과 목적
- II. 성경에 나타난 자살과 그 분석
 1. 신, 구약의 사례
 2. 관찰과 분석
- III. 교회역사와 자살 이해
 1. 교회사적인 흐름과 주요 결정
 2. 교회역사와 신학자들
- IV. 자살, 대죄, 그리고 영원한 저주에 관한 교회의 교리
 1. 자살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인식의 흐름
 2. 대죄(mortal sin)교리와 자살
- V. 자살, 회개 그리고 구원
- VI. 개혁 신학적 조명: 성도의 견인 교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 VII. 나가면서: 바른 교리로 말미암는 목회적 안내와 돌봄
 1. 신학적 요약
 2. 목회적 안내와 돌봄을 위한 제언
 3. 자살 유기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
 4. 자살자의 장례 문제

• ABSTRACT •

A Theolog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Suicide and Salvation and It's Implication to Pastoral Ethics

Shin, Won-Ha

The statement that "Suicide is unforgivable sin" has been spreading in Korean church for long time. It causes a lot of bitterness and suffering for the bereaved, although it might have preventive effect against suicide. But it needs to be theologically analyzed whether or not it is biblically and morally grounded. This article first of all surveys the decisive ecclesiastical statements regarding suicide in the councils in church history throughout the medieval age. It also deals with doctrines of mortal sins, the relationship of salvation and suicide, and unforgivable sins. In addition, it examines its relationship in the light of the doctrine of perseverance of the saints and God's eternal decree, which are contained in a significant Protestant confession of faith,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Finally, on the basis of this theological conclusion, it suggests some guidelines for pastors to take care of the bereaved and some preventive ways against suicide.

Key words: suicide, unforgivable sin, repentance, mortal sins, perseverance of saints, pastoral care of the bereaved

I. 한국사회의 높은 자살률과 교회의 신학 부재: 문제의식과 목적

자살은 기독교회 역사를 통해 가장 혐오스러운 죄로 취급됐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피조물이 자기 뜻에 따라 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죄를 지은 자살자의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왔다. 기독교 신앙과 문화가 지배해왔던 서구 사회에서는 자살에 대한 엄격한 분위기가 근세까지 주도해왔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향이 조금씩 퇴조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살자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교회도 세속화의 영향에 따라 이런 추세를 따라왔다.

한국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최근 들어 자살자 수와 자살률이 급격히 늘면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2010년 한 해 동안 1만 5,56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하루 평균 42.6명이 자살한 셈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자살은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의 1위이고 40대 50대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¹⁾ 신자들의 자살도 늘어나면서 목회자들이 이전과는 달리 당황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때론 중직자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살은 본인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들과 교회에도 큰 고통을 안긴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은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과 ‘자살한 자는 지옥 간다.’라는 통설로 말미암아 더욱 고통을 받곤 한다.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발생한다.

소위 ‘자살한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통설은 과연 어디서 기원했는가?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 교회 중에서 이런 교리를 만들거나 이와 관련된 신학적 입장을 표명하거나 지침서를 만든 교단

1) 김다슬, “어릴 땐 사고 중년기엔 자살, 작년 사망자 역대 최대” 『경향신문』 2011년 9월 9일자, 12. 자살율은 미국과 비교하면 3배이고, OECD 국가 가운데서 1위에 해당한다.

이 있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설은 오랫동안 교회를 지배해 왔다. 구원론은 기독교 신학의 중심에 속한 것인데, 신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통설이 지배하다시피 한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클레먼스(James Clemons) 교수는 교회와 신자들이 자살문제로 크게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마치 낮잠 자듯이 이 문제에 소홀해 왔다고 따끔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기독교 윤리학자들도 다른 윤리적 주제들에 비해 이 문제는 현저히 소홀하게 다루었음을 통계로 밝히기도 했다.²⁾

이 글은 이 통설이 과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이런 신학적 정리를 토대로하여 유가족에 대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돌봄을 위한 안내 지침을 주는 것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한다.³⁾ 먼저 자살에 관해 성경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어 교회의 이에 관한 주요 결정들과 시대의 대표적 신학자들의 사상을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난뒤 이 통설의 근원이 될 교회와 신학자들의 사상과 함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죄 교리를 다룰 것이다.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할 죄에 관련된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2) James T. Clemons, "Suicide and Christian Moral Judgement," in *Christian Century* 102 no.16 (May 8, 1985): 466.

3) 최근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자살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신학자들도 이 주제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연구결과를 내놓기 시작했다. 최근 2~3년 동안에 이상원, 황봉환, 최영태, 김기현 등의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이에 관한 좋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출판했다. 이 논문들은 자살의 실태, 원인, 성격 그리고 이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분석 및 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였고, 모두 다 자살과 구원의 관계를 약간 다룬 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오직 자살과 구원이라는 주제와 그에 관련된 것에 집중해서 신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점에서 본 논문은 그 목적과 성격, 내용이 위 논문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영태, 「한국 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한국복음주의 윤리학회, 「신학과 실천」 제 8권 (2010): 205-253; 이상원,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의 자살」, 총신대학교, 「신학지남」 298호 (2009년 봄): 54-80; 황봉환, 「자살 문제에 대한 성경 및 신학적 논증과 예방적 대안」,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신학과 실천」 제 7권 (2009): 129-158; 김기현, 『자살은 죄인가요?』 (서울: 죠이선교회, 2010).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자살과 구원의 관계를 검토하고 정리한 뒤, 이 결론을 통해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적 조언과 함께 목회적 돌봄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II. 성경에 나타난 자살과 그 분석

성경에 등장하는 자살한 사람은 순서대로 아비멜렉(삿 9:52-54), 삼손(삿16:23-28), 사울(삼상 31:1-6; 대상 10:13-4), 아히도벨(삼하17:23), 시므리(왕상 16:18), 그리고 신약의 가롯 유다(마27:3-10; 행1:16-18)이다.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살한 경우이고 다른 경우는 직접 자살한 경우이다.

1. 신, 구약의 사례

1)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었다. 그는 그들이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기둥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그 안에서 죽었다. 본문에 나타난 기록을 살펴보면 삼손의 죽음은 자기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인들에 대한 복수의 행위 또는 이스라엘을 압제한 블레셋 민족에 대한 민족적 복수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이 위임한 것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살자가 아니라”고 신학자 바르트는 해석하기도 한다.⁴⁾ 어거스틴은, 삼손은

4)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II.4: The Doctrine of Creation* (London: T & T Clark, 1961), 411.

성령이 은밀하게 명령한 대로 행동한 것으로 보면서 자살과 구별하기도 했다.⁵⁾ 이런 주요한 근거는 신약의 히브리서가 그를 아브라함, 모세와 나란히 구름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의 열전에 한 명으로 수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히11:32).

2) 사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회복 불가능한 중상을 입게 된 사울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수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무기당 번 병사에게 자신을 찔러 죽이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그 병사가 거절하자,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려 목숨을 끊었다(삼상31:1-6).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대상10:13-14). 그런데 사울이 죽은 방식 자체나 그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소식을 아말렉 사람에게 전해들은 다윗은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애곡했고(삼하1:11-12), 사울의 생애를 칭송하며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다(삼하1:17-27).

3)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본래 다윗의 책사이었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모반으로 쫓겨 가고 난 뒤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을 칠 방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압살롬이 자기의 모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이자 고향 집으로 돌아가, 신변을 정리한 뒤에 집에서 목을 매고 죽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생을 마감한 방식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고,

5) Augustine, *The City of God*, trans. by Henry Bettenson with intro. by John O'Mera (New York: Penguin Books, 1984), ch. 21 (p. 32).

단지 그가 아버지의 묘에 묻혔다고 기록한다(삼하 17:23).

4) 시므리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신하였던 시므리는 왕을 모반하여 살해하고 다르사에서 왕이 되어 7일 동안 다스렸다. 당시 전쟁 중에 있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자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군대 장관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하고, 그를 공격하려고 왕궁으로 향했다(왕상 18:15-17). 이 소식을 들은 시므리는 왕궁의 경비초소로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스스로 최후를 맞았다(18절). 본문에 따르면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19절). 그런데 본문은 그가 죽은 방식 자체에 대해서나 그런 죽음과 그의 죄와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5) 가롯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고 난 뒤 후회하고 현실을 돌이킬 수 없음을 자책하며 은 30을 성소에 던진 뒤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마27:3-5). 성경은 유다가 “불의의 값”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비참한 죽음으로(행1:18), “제 곳으로 갔다”(행1:25)고 기록해 놓고 있다.

6) 아비멜렉(삿9:52-54)

아비멜렉은 간접적으로 자살한 인물이다. 그는 여룹바알 즉 기드온의 첩에서 난 아들로써 자기 모계 친족 및 백성들을 피어 이복동생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는 3년간 왕으로 통치하다가 반역을 꾀한 무리들과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여인이 망대 위에서 아래로 던진 맷돌을 맞고

머리가 치명적으로 손상되었다. 그는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수치스런 말을 듣기 싫어 병사에게 칼을 빼어 자기를 죽이도록 명령했고 결국 병사의 칼에 죽었다. 그런데 본문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을 죽여 그의 아버지에게 악을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2. 관찰과 분석

위의 여섯 자살 사건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면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경에 언급된 자살은 어떤 것도 우호적으로 표현되지 않았고, 특히 어려운 시기에 탈출구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방편으로도 그려지지 않았다.⁶⁾ 오히려 삼손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 아비멜렉, 사울의 죽음은 그들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치신 결과로 말하고 있고, 아히도벨과 시므리는 다 “제 주인을 반역한”(왕하 9:31) 인물로 취급되었으며,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그럼에도 그들의 자살을 다룬 본문은 자살 행위 자체 즉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는 흥미롭게도 침묵하고 있으며 어떠한 명시적 가치판단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 물론 사울의 경우, 그의 죽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결과라고 성경은 주석을 붙여 놓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살이라는 죽음의 형태와 어떤 인과 관계가 있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는다.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는 그의 죽음을 영예롭게 만들어 주는 다윗의 조사를 길게 다루고 있다. 아히도벨의 경우도 그가 아버의 묘에 묻혔다는 기록을 남김

6) Eugene Merrill, “Suicide and the Concept of Death in the Old Testament,” in *Suicide: A Christian Response*, eds Timothy Demy & Gary Stewart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8), 324.

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를 저주했거나 그 죽음을 수치스럽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모든 자살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나온 반응이었다. 사울과 시므리는 적의 손에 죽게 된 경우에,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부상당해 죽게 될 위기에서, 아히도벨은 거부당한 섭섭함과 심한 체면손상의 상태에서 나온 반응이었다.⁷⁾

넷째, 어떤 본문도 이들의 자살을 구원과 관련시켜 취급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가룟 유다와 관련된 본문에서조차 그가 “제 곳으로 갔다”고 했지만 그것이 그의 자살 행위와 인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는 있지 않다.

III. 교회역사와 자살 이해

1. 교회사적인 흐름과 주요 결정

기독교회의 자살에 대한 입장과 결정을 분석하기 전에 교회가 태동될 당시의 문화와 철학이 이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427-347 B.C.)은, 죽음이란 영혼이 감옥과 같은 육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만 영혼은 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임의로 생명을 끊어 영혼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신의 분노를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도 삶이 견딜 수 없는 수치나 병으로 극도의 고통에 직면할 경우에 자살하는 것은 강력한 강박감 아래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외의 상태에서 생명을 끊는 것은 “나태하고 인간답지 못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보았

7) 같은 책.

다.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인간다운 덕목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살한다는 것은 이런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보았다. 그는 시민들이 조화롭고 통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 절제, 정의와 아울러 용기라는 덕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용기란 비겁과 만용을 피하고 중용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가난이나 다양한 번민을 피하기 위해 생명을 끊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보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고통을 정면으로 대면한다고 말한다.⁹⁾ 그러기에 이런 덕을 갖추거나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는 자살할 수가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예수의 탄생 전후 약 400년 동안 고대 헬라와 로마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스토아 사상은 자살에 유연하고 관용적인 입장이었다. 스토아 사상은 우주는 소멸하면서 다시 생성되고 그 이전 존재로 반복된다는 순환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불멸과 같은 것은 믿지 않고 이것은 죽음으로 해체되어 우주의 영과 연합해 버린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생명에 대해 그렇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장했다. 즉 생과 죽음에 무정념의 상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자연에 따라 사는 삶인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지점에 이를 경우,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것이 이성적인 본성에 맞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군에 포로로 잡힌 장군이 수모를 피하려고, 조국에 대한 충성으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끊는

8) Plato, *Laws*, bk IX, 883c-d. in Michael Uhlmann, "From Plato to Kant" in Last Right: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Debated, ed. Uhlmann (Grand Rapids, Mich.: Eerdmans Company, 1998), 18에서 재인용.

9) Aristotle,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서울: 이제이북스, 2006), 3권 7장 13(1116a).

영웅적인 자살이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 참을 수 없는 무료함, 그리고 극심한 질병 때문에 목숨을 끊는 비 영웅적 자살은, 모두 더 이상 자연에 따른 삶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택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았다.

초대 교회는 이런 시대사상의 영향 아래에서 태동하였지만, 교회는 유대교 전통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도리어 자살을 강하게 정죄했고, 자살에 관용적인 로마 스토아 사상을 비판하면서 자살에 대한 엄격한 신학을 세워나갔다. 4세기의 어거스틴은 자살을 신학적 주제로 삼아 다른 최초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살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의 신학은 중세 교회와 그 이후의 교회의 입장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중세 교회는 자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세 차례 내렸다. 첫째로 533년 오르레앙(Orleans)에서 열린 2차 오르레앙 공의회에서는 사제는 사형당해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미사를 드려도 되지만, 자살한 자들을 위해서는 진혼 미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자살을 사형죄보다 더 악한 것으로 취급한 것이다.¹⁰⁾ 둘째로 이후 약 30년이 지난 561년, 1차 브라가 공의회(Council of Braga)는 교회가 미사를 할 때 자살한 자들을 위해 추념과 같은 어떠한 의식을 하는 것도 금지했고, 또 성서교독과 성가를 부르는 장례식은 허락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¹¹⁾ 셋째로 693년 톨레도(Toledo) 공의회에서는 자살 미수자들이라도 그 죄책을 물어 2개월 동안 성도의 교제에서 단절시키고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다.¹²⁾ 교회가 교회법으로 이것을 명시한 것은 하나의 흐름이 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 내용은 교회법학자이며 교황이었던 니콜라스

10) Alexander Murray, *Suicide in the Middle Ages: The Curse on Self-Mu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82.

11) 위의 책, 183.

12) 위의 책, 185.

1세(Nocholas 1)의 서신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866년에 니콜라스1세는 불가리아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서신을 통해 자살자들에게 결코 교회가 장례의식을 허용하거나, 그 시신을 경내 묘지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¹³⁾ 이런 결정에 따라 자살자에 대해 교회장을 허락하지 않는 관습이 교회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흐름은 오늘에까지 지속되고 있다.¹⁴⁾

2. 교회역사와 신학자들

1)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자살에 관용적인 당시 로마 지식인들의 문화를 비판하면서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정리한 최초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로마인들은 자살 자체보다는 죽음의 방식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더 중시하면서 영웅적인 자살과 같은 것을 두둔했지만, 어거스틴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성경에 믿음의 죽장, 선지자, 사도, 그리고 제자들은,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구금당하고, 능욕 받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 목숨을 끊은 자가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어떤 동기로 행하든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고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¹⁵⁾ 그는 강간을 당한 뒤 자신의 순결함을 드러내기 위해 목숨을 끊은 한 로마 여인의 예를 들면서 비록 그 여인이 그것을 통해 자신이 간음녀가 아니라 피해자였음을 인정받게 되었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요 정당화될 수 없는 악이라고 주장했다.¹⁶⁾ 악을 벗어나

13) 위의 책, 268-9.

14) 위취 책, 186.

15) Augustine, *The City of God*, bk, 1, ch. 17 (p. 27).

16) 위의 책, *The City of God*, bk, 1, ch. 19 (p. 30-31)

기 위해 더 큰 악을 행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¹⁷⁾ 어거스틴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악과 고통을 피하기 위한 자살을 허용하는 듯한 메시지를 주는 곳은 없다고 말하면서, 그 행위는 명백히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6계명은 9계명과 달리 “네 이웃”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이 명령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해석했다.

2) 토마스 아퀴나스

아퀴나스의 자살에 대한 견해는 교회 공의회 결정에 썩기를 막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아퀴나스는 기본적으로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른다. 그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살을 자기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규정했다.¹⁸⁾

첫째, 모든 존재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며,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든 저항한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본성(혹은 자연)의 성향과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는 자비를 거스르는 것”이다.¹⁹⁾ 이런 이유는 자살은 “자연법과 사랑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대죄(a mortal sin)일 수밖에 없다.

둘째, 각 부분들은 전체에 속해 있듯이 모든 사람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러기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잘못이다.

17) 위의 책, *The City of God*, bk. 1, ch. 25 (p. 36)

18) 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Translated by Fathers of English Dominican Province (Benzinger Bros. Edition, 1947), II-II, Q 64, art. 4 (p. 2165).

19) 같은 책, “Suicide is contrary to the inclination of nature, and to charity whereby every man should love himself.”

셋째, 생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로서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속해 있다(신32:39). 인간은 오직 그것을 받을 뿐이지 스스로 그것을 종식시킬 권리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살은 하나님께 속한 권리를 자신이 행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에 대해 죄를 범하는 것이다.²⁰⁾

이처럼 아퀴나스는 자살이란 본인, 공동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유기하고 악을 행한 죄로 보았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어거스틴 신학과 성경의 관점에서 종합한 그의 신학은 자살을 대죄로 본 중세 교회의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3) 마틴 루터

루터는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만큼 자살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신자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우울함이 자살의 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했다.²¹⁾ 루터는 그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방화범이 많은 인명을 죽게 하고 그 불타는 건물 안에서 죽은 사건을 언급하는 가운데 그 일은 사탄이 그 사람에게 선동하고 조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²²⁾ 루터는 자살을 다분히 개인의 죄악이라는 시각보

20) 로마 가톨릭 신학자 O'connell은 이 점에서 자살은 내재적인 악으로 보았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권에 속한 것인데, 이것을 인간이 취하려고 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이다. Timothy E. O'connell, *Principles For A Catholic Morality. Revised Edi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90), 188.

21) Dietrich Bonhoeffer, 손규태 이신건, 오성현 역, 『윤리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39, 240n.

22) Luther's *Works, vol 50: Letters*, edited and translated by Gottfred G Grodel (Philadelphia: Fortress, 1975), 215. 자살을 마귀의 선동 및 작용과 연결시켜 이해한 것은 이미 693년 톨레도 공의회에서 만들 교회법에 나와 있다. 자살을 시도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처방과 조치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마귀의 선동과 연결시켜 놓고 있다. 루터가 이것을 참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Murray, *Suicide in the Middle*

다는 사탄의 힘에 장악되어 지지르는 역부족인 성격의 죄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사탄은 신자에게 예정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염려내지 두려움을 일으켜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감을 갖게 하는데, 이런 생각도 때론 자살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²³⁾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보다는 외부의 힘 즉 사탄에 사로잡혀 자살을 행한 것이라고 보았기에 루터는 이것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로 단정 짓기를 거부했다. “나는 자살한 사람들은 확실히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살한 것은 죽기를 강력히 바랬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의 힘에 장악되어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나무가 우거진 숲의 으스스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살해당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²⁴⁾

4) 요한 칼빈

칼빈은 그의 방대한 양의 주석, 교리문답, 십계명 강해, 그리고 기독교 강요 등의 저작과 문서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자살을 주요 주제로 삼아 다루지 않았다. 성경을 강해하는 가운데 사울의 죽음과 아히도벨의 자살에 관한 부분을 설교하면서 자살을 취급했을 뿐이다.²⁵⁾ 칼빈은 기본적으로 어거스틴의 자살에 대한 견해를 수용하면서, 인간이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지만,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군인이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켜 파수를 서야 하듯이, 인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야 하는 자라고 보았다. 그래서 스스로

Age, 185, 191.

23) Jeffrey Watts, *Choosing Death: Suicide and Calvinism in Early Modern Geneva* (Kirksville, MO: Truman State University Press, 2001), 10.

24) *Luther's Works, vol 54: Table Talks*, ed. and trans by Theodore G. Tappert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67), 29.

25) Jeffrey R. Watts, "Calvin on Suicide," in *Church History*, 66 no 3 (1997): 464.

자살하는 것은 그 소명의 자리를 이탈하는 교만(hubris)에서 나오는 죄악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살을 어거스틴처럼 자기 살해로 보면서 이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²⁶⁾ 그는 고난의 순간에 있어서도 신자는 끝까지 하나님 이 지키시고 결국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살은 이 믿음에 역행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보았다. 어거스틴처럼 그도 소위 영웅적 죽음조차도 결코 합리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수치, 고문, 불행을 피하기 위한 자살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사울이 칼에 엎드려 죽은 것도 또 다른 죄를 첨가한 행동이라고 간주했다.

5) 요한 웨슬리(John Wesley)

웨슬리는 자살에 대해 신학적으로 깊이 사유하기 보다는 이것을 사회 기강과 관련해서 격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살을 자기를 살해(self-murder) 하는 죄로 정죄하면서 교회는 이 사실을 성도에게 엄히 가르치고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18세기 말) 영국에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자살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는 영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경건하지 않고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살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했고, 아울러 그레고리안(Gregorian) 왕조부터 우울증이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한 자살은 처벌하지 않았던 느슨한 영국법률이 자살 증가에 일조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고대 스파르타 사회가 자살한 자들의 시체를 별거벗겨 거리에 실제로 매달고 난 이후 자살 수가 줄어들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영국도 좀 더 엄격하게 자살자들을 다루고 처형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사슬에 묶어 거리에 매달게 되면 자살은 훨씬 줄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안했다.²⁷⁾

26) 위의 책, 466.

27)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XIII: *Letters*, Third Edi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481

IV. 자살, 대죄, 그리고 영원한 저주에 관한 교회의 교리

1. 자살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인식의 흐름

살펴본 바대로 자살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라는 통설은 중세 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정한 교회법과 교리에서 기원하고 있다. 561년 브라가 공의회에서 교회는 자살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자살한 자는 기도해도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즉 지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866년 교황 니콜라스 1세는 자살한 자의 장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신에서 자살은 사탄의 사주로 말미암은 것임을 명시했다. 그 말은 자살자의 영혼은 당연히 사탄이 취한다고 해석했음을 의미한다.²⁸⁾

중세 교회의 영향을 받고 또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대문호 단테가 그의 작품 신곡에서 자살자를 묘사한 것도 이런 인식을 심화시켰다. 단테에 따르면 자살한 자들은 9개 층으로 구성된 지옥에서 마귀가 있는 9번째 층에 가장 가까운 7번째 층에서 비참한 형벌을 받는다. 그들은 육신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로 그들의 영혼은 던져져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육체를 내 던졌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날을 맞아도 육체를 입을 수 없고, 결국 그 곳에 남아 있어 숲이 되어 통곡하며 지낸다.²⁹⁾ 단테는 살인자들보다 자살자를 사탄에 더 가까운 곳에 배치해 둠으로 자살이 더 중한 죄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12세기 교회의 대 신학자인 아퀴나스가 자살을 '대죄'(mortal sin)로 가르쳤던 것은 그런 인식에 쫓겨 박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결정들과 교리들은 자살하면 지옥가게 된다는 인식을 굳게 하는데 기여했다.

28) Murray, *Suicide in the Middle Ages: The Curse on Self-Murder*, 191.

29) Dante Ahligieri, 한형곤 역, 『신곡』(서울: 도서출판 서해문집, 2005), 149-151.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이와는 달리, 교회법이나 교리 문답을 통해 자살에 대한 공적 입장을 거의 가르치지 않았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살에 대해 그의 편지와 대화 편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자살자들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사탄의 힘에 사로잡혀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살이 영원한 저주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생각을 계승했기에 자살을 강하게 정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켜 정죄하지는 않았다. 웨슬리는 자살한 자들이 더 큰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경종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도 이것을 영원한 저주와 연관시켜 말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시켜 다루면서, 자살을 피조물의 월권적인 죄로 취급해 왔다. 이처럼 개신교회에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해 공의회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교리를 제정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 안에도 중세 교회부터 내려오던 이 통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

2. 대죄(mortal sin)교리와 자살

자살에 관한 통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죄의 교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죄를 원죄(original sin)와 본죄(actual sins)로 나누고, 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대죄(mortal sin)와 소죄(venial sin)로 구분했다. 아퀴나스는 자살을 대죄(mortal sin)에 속하는 죄로 분류했다.

대죄는 죄가 세가지 조건을 함께 구성할 경우인데 그것은 1) 죄의 성격이 심각한 것(grave matters)이고, 2) 그 행동의 최악된 성격을 알고 행하는 것(full knowledge), 3) 의지적으로 동의(deliberate consent)하며 범하는 죄이다.³⁰⁾ 심각한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십계명과 예수님의 가르침(막

30)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Second Editio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10:19) 등을 통해 이미 명시된 바 있기에, 그 행동이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택하여 실행하면 그것은 대죄가 되는 것이다. 이외는 달리 소죄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정해진 그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심각한 것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성격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고의가 없이 잘못을 행하는 것이다.³¹⁾

대죄는 하나님의 법을 심각하게 범함을 통해 자기의 심령에 하나님의 자비(God's charity)와 긍휼을 파괴시켜 버린다. 즉 하나님보다 열등한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대죄는 자신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고 복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sanctifying grace)을 상실하게 만든다.³²⁾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그렇기에 대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고해 성례를 해야만 된다고 했다. 고해성사는 대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새로 역사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은혜를 회복하게 한다.³³⁾ 만약 고해 성사를 통해 회개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나라로부터 배제되고 “지옥의 영원한 죽음”(eternal death of hell)에 처하게 된다.³⁴⁾

이런 로마 교회의 대죄 교리의 빛에서 본다면 대죄로 취급된 자살은 고해성사를 통해 화목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자살하는 자는 그 순간 고해성사를 할 수 없고,

Catholic conference, Inc., 2001), 1857-59.

31) 위의 책,, 1862.

32) 위의 책, 1861.

33) 위의 책. 1856.

34) 위의 책, 1861. 그러나 소죄는 하나님의 자비를 약화시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기에 개인적 회개를 통해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고해성사를 거칠 필요도 없다.

결국 자살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 개신교회에서 내려온 통설은 로마 카톨릭교회적인 자살 이해에 크게 빗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자살, 회개 그리고 구원

구약성경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살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것이기에 사형에 처하도록 엄중히 명하고 있지만(창9:6), 모든 살인을 다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모세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쳐 죽였고, 다윗은 살인을 교사해서 간접적으로 살인했다. 물론 그들은 그 행위로 상당한 값을 치렀지만 결국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유독 자기 살인이라 불리는 자살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살은 다른 행위와는 달리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점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생각의 무게있는 단초를 제공한 최초의 신학자는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목숨을 끊은 행위는 오히려 죄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파괴적 가책이 발동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기회”(chance of a saving repentance)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³⁵⁾ 또 그는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범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기회를 남겨놓지 않는 악한 행위자살을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는가?” 라고 말했다.³⁶⁾ 이 생각은 아퀴나스를 통해 오늘날까지 로마

35) Augustine, *The City of God*, bk 1, ch. 17 (p. 27).

36) 위의 책, ch. 25 (p. 36).

교회로 그대로 이어졌고, 결국 자살은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런 인식은 현대 개신교 신자들에게도 만만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단지 '사제를 통한'이라는 구절이 없어지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기에 자살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회개하지 못한 죄이기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과연 신학적으로 타당한가?

개신교회는 회개가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한 회개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가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가운데 택한 자라고 하면 아무리 중대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의 택함 받은 비는 변할 수 없다. 만약 지은 모든 죄에 대해 회개해야만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자칫 행위 구원 내지 공로 사상으로 미끄러질 위험을 안게 된다. 이것은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가 지은 죄를 낱알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K는 사업체가 부도나는 순간을 넘기기 위해 꽤 오랫동안 갚을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절친한 친구 P에게 곧 갚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친구의 보증을 받아 거액을 대출받아 썼다. 결국 P는 K를 위해 보증을 선 것 때문에 사업체와 가정이 파탄이 났고, 비관하여 자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의적 사기를 범한 K가 갑자기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가? K는 의도적으로 8계명과 9계명을 어긴 상태이고 친구를 죽음에 빠뜨린 죄를 지었고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못하다. 구원은 특정한 죄의 회개 여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VI. 개혁 신학적 조명: 성도의 견인 교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God's eternal decree)에 따라 택자와 유기자를 정했다는 예정교리와 구원으로 택함받은 성도는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성도의 견인(The Perseverance of Saints) 교리를 견지해 왔다. 개혁주의 교회가 자살 문제를 신학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에 수록되어 있는 견인 교리는 (1) 참된 신자는 전적으로(totally) 그리고 최종적(finally)으로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고, (2) 그들은 반드시 끝까지 견디게 되고, (3) 이 확실성은 인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가르친다.³⁷⁾ 1항은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고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한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은혜의 상태에서 세상 끝날까지 확실하게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³⁸⁾ 이 내용은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결코 타락될 수 없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교리를 통해 자살자를 들여다 볼 때, 자살이라는 그 행위 자체는 구원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택자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작정에 있기 때문이다.

2항에서 성도의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37) G.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For Study Classes*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5), 126.

38)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ch. 17, 1. 이 교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10:28)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씨의 내주,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 있다.”고 선언한다. 이것이 근거하는 주요 구절인 로마서 8장 29-30절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롬 8:29-30) 성도의 견인은 인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체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말미암음을 동 고백서는 바울을 통해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런데 동 고백서 3장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한 교리에서는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주권에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모든 가정된 조건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실지라도, 장래 일로 예지했거나 그 조건에서 발생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하지는 않았다”(웨신 3장 2항, 5항)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견인을 미리 보심이 없이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자질이나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함 없이 선택”하셨다고 말한다(3장 5항).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기쁘시고 선하신 주권적 작정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으로 견인하신다고 말한다. 바울 사도가 “그런즉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8:31)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이나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롬8:38-39)”고 말한 것은 작정 교리와 견인교리가 근거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이 견인교리의 빛에서 본다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란과 위험이나 칼과 마찬가지로 자살도 결코 택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비록 자유의지로 자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하는 것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살이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에서 나오는 기쁘신 선택의 작정을 변경할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산물인 자살과 하나님의 작정의 산물인 구원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이 견인교리는 잘 정리해 준다.

간혹 ‘정말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자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그를 자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 근거가 충분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17장 3항은 이 주장에 대해서도 답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 있는 부패성의 세력과 자신들을 견인하게 하는 방편을 소홀히 함으로 죄에 빠지며 한동안 그 죄에 머물기도 한다…” 즉, 신자들도 사탄의 유혹과 육신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심각한 죄들을 범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자들이 늘 의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일시적 심판을 받기도 한다.”³⁹⁾ 이것은 구약의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를 촉발시킨 것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언약백성이 율법을 일시적으로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효화하지는 못했다. 이 이유는 언약의 유효성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이다.⁴⁰⁾

선택된 자라 하더라도 언약하게 되면 극단적인 죄를 범하게 될 수도

39)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ch. 17, 3.

40) Stanley Grenz, 신원하 역,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서울: IVP, 2001), 124.

있다는 사실은 극단적 범죄도 선택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자살에 적용시키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것 자체가 선택받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할 수 없다. 자살도 성도들이 육체의 약함과 부패함 때문에 또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치명적 죄악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여타 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것이다. 평소 매우 경건하게 살며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살아온 신자가 과연 6계명을 범할 수 있을까? 드물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7계명은? 그것도 마찬가지이다. 다윗도 6계명과 7계명을 범하지 않았는가? 경건한 자라도 악함이나 악함으로 자살과 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도가 치명적인 악을 범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적 사랑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자살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였고, 스스로 죄의 길을 걸었기 때문일 것이다.

VII. 나가면서: 바른 교리로 말미암는 목회적 안내와 돌봄

1. 신학적 정리

사람들은 때론 다양한 이유로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을 때,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또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병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하곤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을 취할 권리는 없다. 자살하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고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행동이다. 신학자 오코넬은 이 성격 때

문에 자살은 내재적으로 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자살을 가장 심한 죄로 간주했고 이를 경계해 왔다. 오늘도 이 점에서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자살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된다는 주장은 신학적으로 충분한 근거는 없다. 자살자는 자살하는 순간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죽지만, 한 순간의 자살 행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총체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⁴¹⁾ 인생이 비록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조차도 그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막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 그러기에 자살이란 특정 행위가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자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유족과 교회도 꽤 오랫동안 고통을 받기 마련이다. 이런 자들에게 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통설을 바르게 잡고 그것이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임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설령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소망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을 살펴보고 돌보는 일에 더 힘써야 할 것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작정에서 말미암는 것이라는 교리를 교회는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하고, 특히 유족들에게 이 교리를 가르치면서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유족에게 확신시키면서, 유족에게 이제 남은 자로서 앞서 간 사랑하는 사람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하나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

41) Gilbert Meilaender, *Bioethics: A Primer for Christian*(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2006), 57.

다. 그것은 자살이 구원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공공연히 설교하는 것은 조심하고 오히려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말틴 루터가 그것을 권고했는데, 그 이유는 이런 설교는 자칫 사탄에게 자살을 충동질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 면에서 목회자는 사려 깊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2. 목회자의 각성과 돌봄의 극대화를 통한 자살 예방 사역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자들은, 충동적으로 자살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부분 어느 정도의 신호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낸다. 가장 대표적인 조짐과 신호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을 싫어하거나, 그 시간을 점점 줄여가다가, 혼자 지내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생활로 점점 자신에 갇혀 지내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자들이 있으면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들은 외톨이 상태에 처하면서 정서적으로 외롭고, 그래서 판단도 독단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우울증은 자기 비난을 하기 잘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잘한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가치가 없어”,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나는 무시 받아도 당연한 자다” 라는 생각에 도달하곤 이럴 경우 견잡을 수 없는 무가치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은 벌써 중증 상태로 알고 집중적인 돌봄과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말을 들어주고 돌보아 주는 사역을

해야 한다. 찾아가서 따뜻한 눈으로 응시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손을 잡이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

둘째, 죽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낸다. 이것은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는 신호이고 증거이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런 의향이나 마음을 분명히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표시하곤 한다. 자살의지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국의 통계는 자살자의 60%는 자살할 계획을 직접 말하고, 약 20%정도는 간접적으로 언급한다는 것도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목회자, 상담자, 친구들은 ‘죽음’을 언급하는 교우가 있으면 새롭게 인식을 달리 해야 한다. 자살하겠다는 식으로 주위의 사람에게 직접 말하거나 또는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면 ‘또 저런다!’라는 식으로 귀찮아하거나, ‘뭔가 요구하려고 저런다!’는 식으로 간주하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고, 자살 시도 직전에 있는 것을 말하는 신호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자살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자기가 살 소망이 없는 상태에 처해 죽으려고 하니,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지 않게 누가 한번 도와 줄 수 없느냐 라고 도움을 바라는 의사를 완곡하게 반어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말을 하면, 그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가서 알아봐야 한다.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자살 실행 가능성은 높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 우울증 증세를 보인 사람들은 더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런 사람은 결코 혼자 두어서는 안되고,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데려가 약물 치료와 종합적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3. 자살 유가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

일반적으로 자살자의 가족과 유족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된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 한편으로는 이 죽음을 막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자책감 내지 죄의식을 갖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수치감을 갖게 되기도 한다. 특별히 교회전통이 이를 정죄해 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유가족은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당하게 되면 유가족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믿지 아니하려는 일종의 회피하는 상태를 겪기도 한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것을 정면으로 맞아들이면서, 슬퍼하고, 때론 분노하거나 몹시 우울해하고, 절망하는 그런 감정의 단계를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뒤 조금씩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일상생활과 자신의 생업과 현실로 복귀하는 단계이다. 유가족의 주위에 있는 신자와 목회자들은 유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아 가야 한다.

첫째, 유족들에게 어떤 교리적 가르침이나 권면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우선 마음을 함께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롬 14:15)”는 바울의 권고대로 자살 건에 대해 정죄하지 말고 슬픔과 고통에 힘들어하는 남겨진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내세워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신학적, 목회적 성찰 없이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신속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유족들이 자기 마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고 들어주어야 한다. 죽은 사람은 이미 갔지만 남은 자들은 계속 고통과 원망의 피해를 받게 된다. 하나님에 대해, 주위 사람에 대해, 자신에 대해, 때로는 간 사람에게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곳에 없었는가?’라는 식의 울

분이 있다. 이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함께 애통할 때 그 고통은 줄어들다. 이런 기회를 그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목회자와 가까워지고 목회자와 교회에 감사하게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둘째, 자살한 자들을 잃은 상실감,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같이 다양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자들을 돌볼 수 있는 후속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유기족은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그의 죽음을 방관했다는 또는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 수치감, 그리고 외부의 비난과 같은 것으로 몸과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 이것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정도로 상처가 꽤 오래가게 된다. 그래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심방 한 두 번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자책감과 상실감은 문득문득,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목회자와 교회는 좀 길게 시간을 갖고 이들을 돌보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일정기간동안 계속 돌보고 점검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 주고 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묻고 경청하면서 기다려주어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은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조금씩 이들에게 바른 신학으로 대화하고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자비, 섭리, 주권을 가르치고 은혜로운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화하고 가르쳐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금 그를 만날 종말론적 소망 가운데서 고인이 못 다 산 뉘까지도 살아가도록 유족들에게 소망과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4. 자살자의 장례 문제

목사와 교회는 이것에 대해 좀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이것은 유가족을 돌보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도 여기에 대해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 로마 교회의 구교회법은 자살한 자의 장례를 금했으나 새 교회법은 장례식을 거행했을 때 교회적이거나 사회적인 스캔들이 될 수 있을 그런 자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살자들의 장례 금지를 허물었다.⁴²⁾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장례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은 자들과 유족을 위한 것으로 어거스틴은 이미 생각했다. 교회는 유족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허락하는 일에 좀 더 전향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는 유족들에게 움츠리지 말고 장례식을 좀 주도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 가는 것이 좋다. 유가족들이 많이 참여해서 장례를 치러가는 과정에서 고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서로에게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42) K.H. Peschke, *Christian Theology: Moral Theology in the Light of Vatican II*, 김창훈 역, 『그리스도교윤리학』 제2권, (서울: 분도출판사 1992), 345.

참고 문헌

- Ahlgieri,, Dante 한형곤 역, 『신곡』. 서울: 도서출판 서해문집, 2005.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ca*. Translated by Fathers of English Dominican Province. Benzinger Bros. Edition, 1947.
- Aristotle,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2006.
- Augustine, *The City of God*, trans. by Henry Bettenson with intro. by John O'Mera. NewYork: Penguin Books, 1984.
- Barth, Karl. *Church Dogmatics III.4: The Doctrine of Creation*. London: T & T Clark, 1961,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abridged in one volume. Ed. John Bol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11.
- Berkouwer, G.C. *Sin*.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71.
- Bonhoeffer, Dietrich 손규태, 이신진, 오성현 역, 『윤리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Carson, D. A. "Matthew"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9: Matthew & Mark*, Revised Edition. Grand Rapids: Zondervan, 2010.
-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Second Editio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Catholic conference, Inc., 2001.
- Clemons, James T. "Suicide and Christian Moral Judgement," in *Christian Century* 102 no.16 (May 8, 1985): 466-469.
- Grenz, Stanley. 신원하 역,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서울: IVP, 2001,
- Hoekema, Anthony.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6.
- Luther's Works vol 50: Letters*. Eited and translated by Gottfred G Grodel. Philadelphia: Fortress, 1975.
- Luther's Works, vol 54: Table Talks*. Ed. and trans by Theodore G. Tappert.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67.
- Meilaender, Gilbert. *Bioethics: A Primer for Christian*. Grand Rapids:

- Eerdmans Publishing Co., 2006.
- Merill, Eugene. "Suicide and the Concept of Death in the Old Testament," in *Suicide: A Christian Response*, eds Timothy Demy & Gary Stewart.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8: 315-326.
- Murray, Alexander. *Suicide in the Middle Ages: The Curse on Self-Mu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O'connell, Timothy E. *Principles For A Catholic Morality. Revised Edi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90.
- Peschke, K.H. 김창훈 역. 『그리스도교윤리학 제 2 권』. 서울: 분도출판사 1992.
-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XIII: *Letters*, Third Edi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 Uhlmann, Michael. "From Plato to Kant," in *Last Right: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Debated*, ed. Uhlmann. Grand Rapids, Mich.: Eerdmans Company, 1998:11-46.
- Watts, Jeffrey. *Choosing Death: Suicide and Calvinism in Early Modern Geneva*. Kirksville, MO: Truman State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Calvin on Suicide," in *Church History*, 66 no 3 (1997): 4643-476.
- Williamson, G.I.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For Study Classes*.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5.
- <http://www.desiringgod.org/resource-library/sermons/funeral-mediation-for-a-christian-who-committed-suicide-1981>

논문투고일: 2012. 04. 30

심사개시일: 2012. 05. 16

게재확정일: 2012. 06. 22

• 국 문 초 록 •

“자살하면 지옥간다”는 통설이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해 왔다. 소위 이 통설은 자살예방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검토된 주장은 아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가족들과 지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자살과 구원에 관련된 내용과 가르침을 교회 역사적으로 먼저 살피되 주요한 공의회 결정과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빈 등과 같은 신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대죄 회개와 구원의 관계에 대한 교리를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성경의 ‘사함받지 못할 죄’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내린다. 다음에 개신교회의 주요한 신학 전통인 개혁 신학의 전통의 고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성도의 견인 교리’의 관점에서 자살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신학적 입장에 토대해서 목사가 자살과 관련된 목회적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유가족을 돌볼 것인지, 또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목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자살, 용서받지 못할 죄, 회개, 대죄, 성도의 견인, 영원한 작정
